

진각종·조불련 평양에 탁아소 설치 합의

지원규모·명칭 등 구체사안 추후 협의키로



11월 21일 묘향산 보현사에서 열린 '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 진각종 대표단, 조선불교도연맹 명 박태화 위원장 등 100여명의 북측 신도들이 동참했다(사진 위). 11월 20일 스리랑카 네곰보에 개원한 한국문화홍보관의 테이프컷팅 모습. 사진제공=진각종

진각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이 북한 내에 탁아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측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진각종 대표단(단장 진산, 종의회 의장은 19일 조선불교도연맹 창사에서 박태화 조불련 위원장 등과 만나 평양에 탁아소를 설치하기로 원칙적인 합의

이 동참한 가운데 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고, 평양 9.15 주락아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진각종은 평양 컴퓨터강습소 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컴퓨터를 대북지원 제한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한 단계에서 바로 강습소 개설은 무리라고 판단해 추후 조불련과 논의하기로 했다.

묘향산 보현사에서 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 JGO스리랑카 직업센터에 문화홍보관

를 하고, 지원 규모, 명칭 등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 사안은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진각종은 우선 우유, 모포 등의 유아용 용품을 북측에 지원하기로 하고, 탁아소 설치문제가 구체화될 내년 5월 통일위원장이 직접 방북해 이 문제를 대담하기로 했다. 이어 진각종대표단은 방북기간 동안 묘향산 보현사에서 조불련 관계자 100여명

한편 진각종은 11월 20일 진각북지재단 해외지부인 JGO스리랑카 사회직업훈련센터 내에 한국문화홍보관을 개관했다. 올 5월부터 6개월간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지원을 받아 훈련센터내 본관을 개축해 문을 연 한국문화홍보관은 한국 문화를 현지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의 장으로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la.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후원의 밤 성료

각계인사 500여명 참가, 본사 순회 모금 시작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불사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의 밤이 11월 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원로의원 석주스님, 종회의장 지하스님, 교육위원장 무비스님, 포교위원장 도영스님, 백정기 중앙신도회장, 한화당 민주당 대표, 하순봉 한나라당 불자회장,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 등 종단 주요 사찰 주지 및 신도회, 불교단체 관계자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인사말에서 "성역화 불사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문화기념관 불사의 예전 전통문화센터로서, 또 한국전통문화의 정신을 배우고 체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

을 할 것"이라며 "불자와 국민여러분의 권력과 성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행사는 성역화불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함께 후원동참자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원로의원 지하스님 1천만원,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 1천만원, 법주사 주지 지명스님 1억원, 도선사 주지 해자스님 2억원,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1억원, 화계사 주지 성공스님 1억원, 선운사 주지 법현스님 5천만원, 한마음선원 주지 하현스님 5천만원, 진각사 진관스님 5천만원, 대불당·포교사단 교수불자연 등이 각각 1천만원을 약정했다. 또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부인 한인숙 여사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정관계 인사들도 각각 금일봉을 전달했다. 한편 성역화후진불사위원회는 25일 순주사에서 모금 후원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국 24개 교구본사를 순회하며 모금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11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기금 모금의 밤에는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한명우 기자

국제포교사회 조직 대폭 정비

6개부서 설치·외국인포교 활성화 추진

거점도량 법회도 상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포교사들의 외국인포교 능력을 키우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조직정비에 나선다. 국제포교사회(회장 조우영)는 창립 4주년을 맞아 11월 23일 불교회관에서 열린 제3대 회장 취임 및 기념법회에서 국제포교사들에 대한 교육 강화에 핵심을 두고 핵자·번역, 국내거주 외국인 포교활동 전개 등의 2003년 청사진을 내놓았다. 또 국제포교사들의 해외포교 현황 조사, 재정 자문안 마련, 국제포교사 육성 확대 등 외국인포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소양 및 전문화 교육 강화 △국제포교 활성화 세미나 개최 △한국 불교 및 문화서적 번역 △연동축제 등 외국인 참여 행사 병행 △미 8군 법회 개설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외국인 노동

자 주한 외교관 부인 사찰 체험 등을 추진한다. 국제포교사회는 11월 초 제3대 회장단을 구성하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기획부, 교육지원부, 자료개발부, 교류협력부, 편집부, 홍보부 등 6개 부서를 새롭게 설치하는 한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6개 지부를 설치하는 등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설립 목적인 한국불교의 국제화와 외국인 포교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 정비를 통해 원활한 조직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우영 신임 회장은 "창립 당시 40여명에 불과했던 인원이 4년만에 150명으로 늘고, 분야도 영어 외에 일어 중국어까지 확대됐다"며 "일어로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드니 등 교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거점도량을 설립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회를 상설화 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법장스님



지성스님



일면스님

그동안 친목단체 성격이 강했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가 회장단을 구성하고 불교발전을 위한 진지한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교구본사주지연합회(이하 본사주지련)는 11월 25일 대전 유성 스파피아 호텔에서 18명의 본사주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갖고 법장스님(수석) 주재로 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부회장에 지성(동화사 주지) 일면(봉선사 주지) 스님, 간사에 법현스님(선운사 주재)을 각각 선출했다. 회장단의 임기는 2년이다. 본사주지련은 그동안 회장단이었을 뿐 회장단이 구성돼 있지는 않았었다. 법장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련 회장단 구성

회장 법장스님 선출

부회장 지성·일면스님

님은 "각 본사들이 힘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포교방법론 등 불교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사주지련은 80년대부터 존재해왔던 단체로 본단의 정식 단체는 아니지만 교구본사 주지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항상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98년 종단사태 당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이 '교구본사주지연합회'로 전환하면서, 종단 현안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따라서 본사주지

련이 회장단을 꾸리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한편, 본사주지련 스님들은 정기모임 다음날인 11월 26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노태성 문화재청장과 조찬을 함께 하며 지방지치단체가 사찰 문화재 보수에 개입하는 현행 방식은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노태성 문화재청장은 "일리 있는 지적이며,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케보받습니다
한때 불교인보다 더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케보보수구를 운영하고 독자 여러분의 애초부터 감사드립니다.
829-722-4162, buddhanews.com

꿈을 ★ 이루십시오!
정신력을 키우고 기력 나간다면 귀여운 꿈도 현실이 됩니다.
건강한 부유함 / 건강 / 성취 그것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잠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바타 체험해보십시오!
귀여운 소꿉난 꿈들을 이루십시오!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운세보기

1. 각종 매체에 나오는 '운세'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① 매일 본다 ② 가끔 본다 ③ 안 본다

2. 보실 경우 얼마나 믿으십니까?
① 믿지 않고 흥미로 본다 ② 대부분 믿는다 ③ 좋은 내용은 믿고 나쁜 내용은 믿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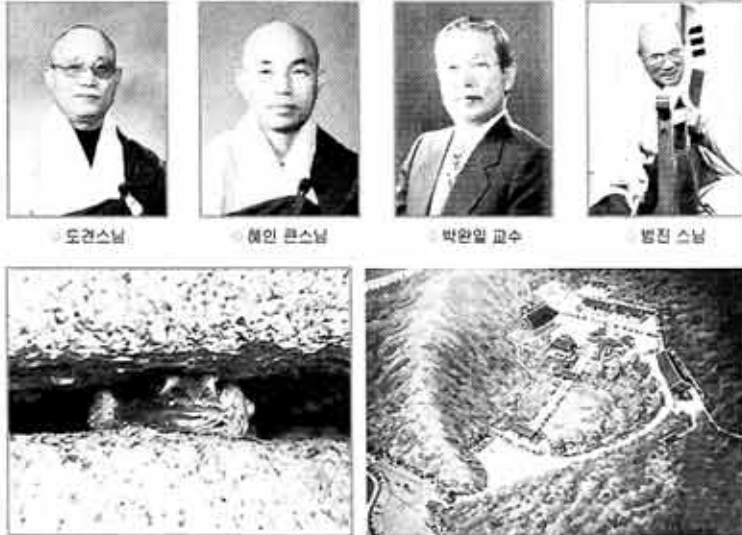
설문 참여: 12월 5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기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8호 A면 8면에 실립니다.

통일기원 호국석조 지장보살 조성 부산 대법회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

- 일 시: 불기 2546년(2002년) 12월 11-12일 오전 10:30분
- 초청법사: 제주 약천사 외주 예인 큰스님 법문
- 초청법사: 박원일 교수님 강의(전 조계종 전국 신도회장)
- 초청법사: 범진 스님의 음성공양
- 장 소: 부산 국제신문사 대강당
- 주 최: 강원도 철원 도피안사
- 주 관: 부산 경남 도피안사 신도회
- 후 원: 철원 도피안사 신도회
- 연 락 처: 철원 도피안사 033)455-2471
051)807-5507 / 011-876-5504
- 후원업체: 부산 국제신문사 내원정사
연대불교신문사 부산불교방송
중정 다래원



도연스님, 예인 큰스님, 박원일 교수, 범진 스님

도피안사 조경도

불사모연중

대한불교 조계종 금와보살 출현도량 철원 도피안사

진각종·조불련 평양에 탁아소 설치 합의

지원규모·명칭 등 구체사안 추후 협의키로



11월 21일 묘향산 보현사에서 열린 '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 진각종 대표단, 조선불교도연맹 명백태와 위원장 등 100여명의 북측 신도들이 동참했다(사진 위). 11월 20일 스리랑카네곰보에 개최된 한국문화 홍보관의 테이프커팅 모습. 사진제공=진각종

진각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이 북한 내에 탁아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측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진각종 대표단(단장 진산, 종의회 의장은 19일 조선불교도연맹 창사에서 박태와 조불련 위원장 등과 만나 평양에 탁아소를 설치하기로 원칙적인 합의

이 동참한 가운데 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고, 평양 9.15 주락아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진각종은 평양 컴퓨터강습소 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컴퓨터를 대북지원 제한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한 단계에서 바로 강습소 개설은 무리라고 판단해 추후 조불련과 논의하기로 했다.

묘향산 보현사에서 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 JGO스리랑카 직업센터에 문화홍보관

를 하고, 지원 규모, 명칭 등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 사안은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진각종은 우선 우유, 모포 등의 유아용 용품을 북측에 지원하기로 하고, 탁아소 설치문제가 구체화될 내년 5월 통일위원장이 직접 방북해 이 문제를 대담하기로 했다. 이어 진각종대표단은 방북기간 동안 묘향산 보현사에서 조불련 관계자 100여명

한편 진각종은 11월 20일 진각북지재단 해외지부인 JGO스리랑카 사회직업훈련센터 내에 한국문화홍보관을 개관했다. 올 5월부터 6개월간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지원을 받아 훈련센터내 본관을 개축해 문을 연 한국문화홍보관은 한국 문화를 현지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의 장으로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후원의 밤 성료

각계인사 500여명 참가, 본사 순회 모금 시작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불사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의 밤이 11월 2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원로의원 석주스님, 종회의장 지하스님, 교육위원장 무비스님, 포교위원장 도영스님, 백정기 중앙신도회장, 한화당 민주당 대표, 하순봉 한나라당 불자회장,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 등 종단 주요 사찰 주지 및 신도회, 불교단체 관계자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인사말에서 "성역화 불사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문화기행관 불사의 예전 전통문화기행관, 또 한국전통문화의 정신을 배우고 체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

을 할 것"이라며 "불자와 국민여러분의 권력과 성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행사는 성역화불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함께 후원동행자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원로의원 지하스님 1천만원,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 1천만원, 법주사 주지 지명스님 1억원, 도선사 주지 해자스님 2억원,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 1억원, 화계사 주지 성공스님 1억원, 선운사 주지 법현스님 5천만원, 한마음선원 주지 하현스님 5천만원, 진각사 진관스님 5천만원, 대불당-포교사단 교수불자연 등이 각각 1천만원을 약정했다. 또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부인 한인숙 여사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정관계 인사들도 각각 금일봉을 전달했다. 한편 성역화후진불사위원회는 25일 순주사에서 모금 후원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국 24개 교구본사를 순회하며 모금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11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불교총본산 성역화 불사기금 모금의 밤에는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한명우 기자

국제포교사회 조직 대폭 정비

6개부서 설치·외국인포교 활성화 추진

거점도량 법회도 상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포교사들의 외국인포교 능력을 키우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조직정비에 나선다. 국제포교사회(회장 조우영)는 창립 4주년을 맞아 11월 23일 불교회관에서 열린 제3대 회장 취임 및 기념법회에서 국제포교사들에 대한 교육 강화에 핵심을 두고 핵자·번역, 국내거주 외국인 포교활동 전개 등의 2003년 청사진을 내놓았다. 또 국제포교사들의 해외포교 현황 조사, 재정 자문안 마련, 국제포교사 육성 확대 등 외국인포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소양 및 전문화 교육 강화 △국제포교 활성화 세미나 개최 △한국 불교 및 문화서적 번역 △연동축제 등 외국인 참여 행사 병행 △미 8군 법회 개설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외국인 노동

자 주한 외교관 부인 사찰 체험 등을 추진한다. 국제포교사회는 11월 초 제3대 회장단을 구성하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기획부, 교육지원부, 자료개발부, 교류협력부, 편집부, 홍보부 등 6개 부서를 새롭게 설치하는 한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6개 지부를 설치하는 등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설립 목적인 한국불교의 국제화와 외국인 포교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 정비를 통해 원활한 조직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우영 신임 회장은 "창립 당시 40여명에 불과했던 인원이 4년만에 150명으로 늘고, 분야도 영어 외에 일어 중국어까지 확대됐다"며 "일어로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드니 등 교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거점도량을 설립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회를 상설화 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조계종 교구본사주지聯 회장단 구성

회장 법장스님 선출

부회장 지성·일면스님



법장스님



지성스님



일면스님

그동안 친목단체 성격이 강했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가 회장단을 구성하고 불교발전을 위한 진지한 모임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교구본사주지연합회(이하 본사주지련)는 11월 25일 대전 유성 스파피아 호텔에서 18명의 본사주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갖고 법장스님(수역사 주재)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부회장에 지성(동화사 주지) 일면(봉선사 주지) 스님, 간사에 법현스님(선운사 주재)을 각각 선출했다. 회장단의 임기는 2년이다. 본사주지련은 그동안 회장단이었을 뿐 회장단이 구성돼 있지는 않았었다. 법장스

님은 "각 본사들이 힘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포교방법론 등 불교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사주지련은 80년대부터 존재해왔던 단체로 본단의 정식 단체는 아니지만 교구본사 주지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항상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98년 종단사태 당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이 '교구본사주지연합회'로 전환하면서, 종단 현안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따라서 본사주지

련이 회장단을 꾸리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한편, 본사주지련 스님들은 정기모임 다음날인 11월 26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노태성 문화재청장과 조찬을 함께 하며 지방지치단체가 사찰 문화재 보수에 개입하는 현행 방식은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노태성 문화재청장은 "일리 있는 지적이며,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케보받습니다
한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케보보수권을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애호를 기대합니다.
829-722-4162, buddhanews.com

꿈을 ★ 이루십시오!
정신력을 키우고 기력 나간다면 귀여운 꿈도 현실이 됩니다.
건강한 부유함 / 건강 / 성취 그것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잠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바타 체험해보십시오!
귀여운 소꿉난 꿈들을 이루십시오!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운세보기

1. 각종 매체에 나오는 '운세'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① 매일 본다 ② 가끔 본다 ③ 안 본다

2. 보실 경우 얼마나 믿으십니까?
① 믿지 않고 흥미로 본다 ② 대부분 믿는다 ③ 좋은 내용은 믿고 나쁜 내용은 믿지 않는다.

설문 참여: 12월 5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첨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8호 A판 8면에 실립니다.

통일기원 호국석조 지장보살 조성 부산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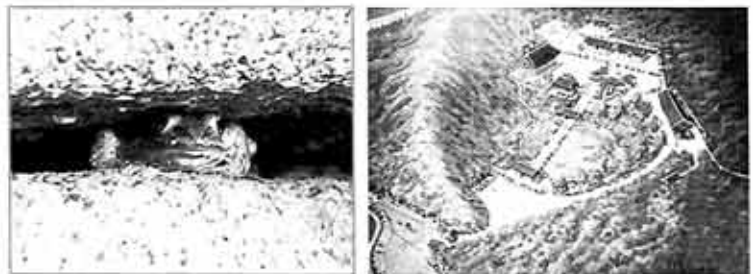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

- 일 시: 불기 2546년(2002년) 12월 11-12일 오전 10:30분
- 초청법사: 제주 약천사 외주 예인 큰스님 법문
- 초청법사: 박원일 교수님 강의(전 조계종 전국 신도회장)
- 초청법사: 범진 스님의 음성공양
- 장 소: 부산 국제신문사 대강당
- 주 최: 강원도 철원 도피안사
- 주 관: 부산 경남 도피안사 신도회
- 후 원: 철원 도피안사 신도회
- 연 락 처: 철원 도피안사 033)455-2471
051)807-5507 / 011-876-5504
- 후원업체: 부산 국제신문사 내원정사
연대불교신문사 부산불교방송
중정 다레원



도연스님, 예인 큰스님, 박원일 교수, 범진 스님



도피안사 조경도

불사모연중

대한불교 조계종 금와보살 출현도량 철원 도피안사